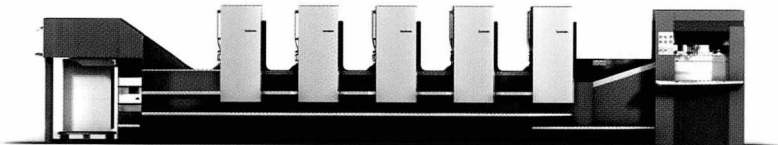


## 하이델베르크 SM102, CD 102 아쿠아 플러스 버전

# 알콜 사용량 50% 절감 효과 고속인쇄 시 정확성 유지 탁월



하이델베르크는 최근 SM 102와 CD 102에 저알콜 인쇄를 위한 각종 기능을 첨가한 아쿠아 플러스 버전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아쿠아 플러스 버전은 유럽의 환경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만큼의 친환경 요소가 강화되어 작업 환경을 향상시키는 물론 한국형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쿠아 플러스는 50% 이상 알콜을 줄여 인쇄할 수 있는 저알콜 인쇄 기능들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XL 105에 탑재되어 시간당 1만8천장의 고속 인쇄에서도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시장에서 이미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프리셋 플러스 피더”를 장착해 SM 102와 CD 102의 생산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파일 높이 무단계 자동 상승으로 프리셋 플러스 피더와 함께 안정적 급지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작업자는 안심하고 인쇄 품질에 주력할 수 있다. 또한 캔버스 분산 콘트롤 시스템과 MIS 및 프리프레스와 쌍방향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최신의 디지털 네트워크 기능을 갖추어 생산성 뿐만 아니라 전체 인쇄사의 워크플로 향상도 기대된다. 또한, 선택사양으로 제공되는 좌·우 진동롤러 원격 조정과 신속한 잉크존 모터 작동으로 파지가 줄어 비

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에러 메시지가 확장된 인공지능 진단 기능은 작업자로 하여금 쉽고 빠르게 인쇄기의 이상을 알아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리모트 서비스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 하이델베르크 엔지니어가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인쇄기의 이상을 진단할 수 있어 서비스 비용 및 시간 절약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다.

### 생산성 향상된 칼 교환 방식도 함께 선보여

아쿠아 플러스와 함께 하이델베르크는 새로운 재단기 칼 교환방식인 옵티나이프(Opti-kinfe)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옵티나이프 방식은 칼의 수평 조절을 위해 작업자가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거칠 필요가 없어 기존의 칼 교환 방식에 비해 50%이상 교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재단기 앞에서 칼에 관한 모든 셋팅(칼 좌우 수평,전체 높이 조절)이 손쉽게 이루어진다. 또한 옵티나이프만의 칼 미세조정을 통한 정확한 수평조정 기능은 재단목과 칼을 보호하고, 칼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 기존 방식에 비해 비용의 절감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